

※ 2023. 8. 30.(수) 10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환 영 사**

---

2023. 8. 30.(수) 10:00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I.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세계 각국의 핀테크 트렌드를 공유하고  
금융회사·핀테크 기업·투자자·소비자가 소통할 수 있는 행사인  
2023년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축하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위원님,  
싱가포르 통화청 소프넨두 모한티(Sopnendu Mohanty) 최고핀테크책임자님과

영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니콜라스 라이온스(Nicholas Lyons) 런던 Lord Mayor(금융특구시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멀리 해외에서 찾아주신 국제기구 관계자\* 여러분과  
특별 세션을 통해 핀테크·디지털 금융 분야의  
글로벌 동향과 비전을 공유해주실 연사\*\*분들,

\* 세계은행, IFC, EBRD, UNIDO 등 참석

\*\* 이스라엘 중앙은행 다니엘 하이하쉬빌(Daniel Hahishvili) 최고금융감독관,  
국제금융공사(IFC) 매튜 썰(Matthew Saal) 디지털금융국장

박람회에 참여해주신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금융유관기관 관계자\*분들과  
참석해주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  
변영한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등 참석

## II. 그간 정부의 대응과 향후 정책방향

---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빅블러(Big Blur)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지급결제 인프라의 개방 확대,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앱”의 등장은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우리 금융산업의 혁신과 성장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금융혁신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여  
많은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혁신 인프라를 구축해왔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19.4월 도입)를 통해  
그간 규제로 막혀있던 금융서비스가 새롭게 출현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API 기반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도입(‘22.1월)하여  
금융분야에서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를 위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도  
올해 5월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픈뱅킹(‘19.12월 도입)을 통해  
금융결제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개방하여  
핀테크 기업들의 사업영역 확대와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융의 디지털화에 있어 규제개선 건의가 많았던 망분리 규제도  
보안 능력과 업무환경 등을 감안해 점차 합리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개발·테스트, 비중요업무에 대한 클라우드 컴퓨팅(SaaS 이용) 분야에서 망분리 예외 인정

또한,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20년 ~ '27년 / 8년간 1조원)를 조성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정책자금과 보육공간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 핀테크 기업들의 핀테크 사업 평균 매출액(억원) : ('19) 70 → ('20) 85 → ('21) 179  
핀테크 기업 수(개): ('19) 345 → ('20) 484 → ('21) 553

하지만, 디지털 전환 초기에 구축한  
인프라와 사업모델들이 안정화됨에 따라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의 출현이 감소하는 등  
핀테크의 다양성과 혁신이 정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과는 다른 성장방식과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며,  
핀테크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핀테크 정책의 세 가지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① 먼저, 핀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들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해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진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험과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핀테크 기업에게  
해외 현지 정보와 해외진출 거점의 제공하고,  
핀테크 기업 주요 진출국가의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현지 금융회사 및 해외 투자자와의 협업·매칭을 지원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해외 인력 Pool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핀테크 기업이 해외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현지 진출 금융기관·핀테크랩 등과 연계한  
현지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를 활성화 하는 등  
홍보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②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의 정보와 기술력을 활용하는  
B2B 분야\*는 핀테크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대안신용평가시스템 개발, 노후 계정관리 프로그램 개선 등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데이터 및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 해외공동 진출\* 등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의 場을 마련하고,

\* 예: 은행의 해외 라이선스를 활용, 핀테크 기업이 현지에서 기술기반 금융서비스 제공 등

금융회사가 핀테크와 다양한 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 허용, 본질적 업무범위 조정 등  
업무 위·수탁 제도의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 업무위탁 허용범위가 확대로 증가하는 제3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검토 병행

## ③ 아울러, 핀테크 기업들이 신기술을 토대로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소핀테크 기업의 가명정보 활용 지원,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신속하고 편리한 데이터 결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망분리 관련 규제를 보다 합리화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겠습니다.

### III. 맺음 말씀

---

금년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총 82개의 전시부스, 12개의 전문분야별 세미나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됩니다.

글로벌 긴축 강화와 불확실한 경제여건으로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일시적으로 위축되고 있지만,

마켓츠앤마켓츠(MarketsandMarkets)는  
서비스로의 핀테크(FaaS; Fintech as a Service) 시장 규모가  
'23년 3,105억 달러에서 '28년 6,769억 달러로  
성장(연평균 16.9%)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는 여전히 굳건한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코리아 핀테크 위크가  
이러한 시장의 기대를 실현시키고,  
금융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과감한 아이디어가  
탄생하고 성장하는 역사적인 場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